

LG화학, 주니어공학교실 개최

LG화학이 임직원의 내부역량을 활용해 실시하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활동, 주니어공학교실이 9월24일 대전 자혜원에서 <아름다운 전자기타 소리 속으로>를 주제로 과학수업을 진행했다.



LG화학 기술연구원 소속 8명의 연구원들이 대전 자혜원을 방문해 30여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나무 막대기와 닭싹줄을 이용해 전자기타를 직접 만들고 연주하면서 소리의 원리와 성질에 대해 공부했다.

주니어공학교실은 과학 꿈나무 육성을 위해 LG화학 기술연구원 소속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대전지역 초등학생 및 복지시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과학수업을 진행하는 LG화학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LG화학은 2004년부터 공학교실을 시작해 2008년 5년째를 맞고 있으며, 5년간 봉사활동에 참여한 연구원수는 500여명에 이른다.

<화학저널 2008/09/25>